

특별선교주일

세계평화주일

설교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설교자료

각 교회는 원하는 주일을 택해 세계평화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 삼위일체주일인 올해 6월 12일에 특별헌금과 함께 세계평화주일을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로마서 5:1-5에 기초해 작성된 본 설교 자료를 개 교회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활용하세요. 함께 제공된 예배 자료, 헌금 전 이야기, 어린이 자료와 같이 사용하여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평화주일입니다! 세계평화주일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화평케하는 사람과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아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미시간주 칼라마주제일연합 감리교회의 사역인 우리 이웃돕기 사역 (Helping Our Neighbors)는 지역 노숙인들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믿음만한 소통 수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웃돕기 사역은 세계평화주일 지원금을 통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받는 이들에게 무료 휴대 전화와 1년간의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칼라마주교회는 그들의 믿음에 마음이 움직였고 믿음만한 소통 수단이 필요하다고 표현했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에 보낸 그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



설교자료

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울은 로마제국의 지배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뤄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권력, 폭력, 재물이 아닌, 평화와 정의를 통해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제국과 나라들의 정치적, 위계적 구조와 매우 다르며, 민주당과 공화당을 초월하고,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존재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정의는 하나님의 세계에 온전함과 회복을 가져오는 체계와 실천을 통해 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사람들 및 창조 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도록 회복하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수동적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정의를 건설하도록 이끄는 능동적 평화입니다.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신성한 동반자로 부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은 우리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가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때 구체화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사랑받는 피조물인 우리와 더 가까이하길 원하십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때때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위기와 어려움을 지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고난 자체를 미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히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방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설교자료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목격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슬프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상처를 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함께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소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2천년 전 발생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최악의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끔찍한 사건조차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소망은 압제와 속박의 체계를 깨트리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해방의 창조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시작되게 하소서!”(연합감리교 찬송가 431장의 제목이다. 한국어판 찬송과 예배에는 137장 “이 땅에 주의 평화”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 역자 주)

오늘 우리는 담대히 서서 경제적 불평등, 환경 파괴, 성 불평등,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질병이 넘쳐나는 곳에서 평화와 정의를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평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불의를 지속하는 이런 상황과 체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을 위해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오늘 세계평화주일 아침에,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한 치유의 소망이 넘치게 부여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